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기현호



골프황제로 불렸던 아놀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가 관련된 골프사를 들추다 보면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다. 그들은 1960년대 들어 각종 골프대회에서 황제의 패권을 다툰다. 덕분에 그들은 무수한 화제 거리를 만들었는데 62년 US오픈에서의 은밀한 비즈니스는 세계 최고를 향한 그들의 야망을 잘 보여준다.

기 어려운 텐데 상금이러도 더 가져가라'는 선배의 신심이였다. 황제의 몰락을 예감한 것일까, 니클라우스는 단호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라며 거절했다. 파머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번 우승을 끝으로 10년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후 니클라우스는 황제의 상징인 마스터스 그린제킷을 6번 입는 영화를 누렸으나 그도 세월에는 어쩔 수 없었다. 46세이던 86년 마스터스 우승이 마지막 향연이었고 2005년 눈물을 흘리며 마스터스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니클라우스 이후 군웅이 활거한 뒤 97년부터 마스터스 타이틀 4번을 거머쥔 타이거 우즈가 현재 '인연하'를 구가하고 있다. 이처럼 당대를 호령하던 황제들이 명멸

지대위 우승인 그랜드슬램의 첫 번째 고지를 넘을 것인가, 그가 갖고 있는 이 대회 최소 타 기록 18언더파를 깰 것인가, 골프에서 우즈의 진정한 목표는 어릴적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18개를 버디인데, 후시라도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인지 사하나 하나가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다.

우즈의 '1인 천하' 지켜봐야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존경해주는 것만큼 멋진 감정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으로부터 땀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큰 손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골프팬들이 마스터스에 빠져들만한 이유인 것 같다. 덧붙여 지난 2004년 최고의 성적인 3위에 오른 최경주도 첫 메이저 우승을 마스터스로 잡고 있어 그 활약을 기대한다. 다 접어들더라도 6개월동안 단 1명의 고객도 받지 않고 디포 자국하나없이 웅단처럼 깨끗하게 단장해 놓은 페어웨이,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소나무숲과 아름다운 꽃밭, 자연 그대로 흐르는 계곡과 실개천 등 명인들과 함께 마스터스의 신비를 즐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골프의 맛을 아는 골퍼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체육부장> kihh@kwangju.co.kr

마스터스에 빠져드는 이유

이 얘기는 오랫동안 회자했다. 어쨌든 이쯤 되면 주말골퍼라도 승부는 짐작할 수 있는 것. 파머가 자신이 있었던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존심 상하고 스타일만 구긴 파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골프다. 승승장구한 니클라우스는 다음해 4월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까지 석권하며 비로소 황제로 등극한다. 파머는 1955년 프로데뷔 첫해 캐나다 오픈 우승, 57년 PGA 4개대회 우승에 이어 58년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으나 황제 제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 마스터스 4

해간 마스터스골프, 그 71번째 대회가 5일 개막된다. 이번 97명 최고 명장들의 각축장인 우즈는 도박사들도 점쳤지만 단연 우승 1순위다. 그의 활약을 남볼 자는 없다. 우즈의 부진을 예상할 어떤 근거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필 미켈슨으로부터 지난해에 내준 그린제킷을 건네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골프팬들은 올해 마스터스에서 우즈가 보여줄 최고의 기량을 흥분할 일만 남았다. 골프라는 종목에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최고는 무엇인지를 감상하는 일이다. 누구도 오르지 못한 4개 메이

시설

알맹이 없는 FTA 보완대책 실패 크다

정부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부분에 대해 피해를 직접 보전해주는 직불금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페업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나 축산브랜드 육성, 우수 품종 보급, 수산설비 현대화 등을 내세웠다. 국내 경제 전반과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한미 FTA 대책치고는 너무 알맹이가 없어 실패한다.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피해보전도 추후 대상 품목이나 지급요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히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보완책은 정부가 FTA 반대 여론을 의식해 여론무마용의 졸속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다. 14개

월여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피해 예상 부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한 뒤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번 대책에는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성의 없는 자세로 FTA를 반대하는 정치권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국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전직훈련이나 교육, 정보제공, 고품질 농수산물로의 전환 등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금 보상 등 단순한 시혜적 지원에 그쳐서는 농촌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피해가 불가피한 업종이나 분야별로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면밀하게 분석한 뒤 완벽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초점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맞춰져야 한다.

한 총리, 국정 안정적 마무리에 주력하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출범후 4번째 총리체제가 맞을 올린 것이다. 한 총리에겐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한 총리는 '실무형'으로 꼽힌다. 전문관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내 국정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치색이 없어 국정을 조율하는데 적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총리로서의 소신과 강약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총리가 해쳐나가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국론분열이 심각하고 국회 비준까지 얼마나 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지 짐작할 수 없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직속 한미 FTA체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

을 갖고 있어 FTA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 분석이 있지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총리는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희생된 농업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각의 중립적 운영도 과제다. 대통령의 탈당으로 집권 여당이 사라진 현실에서 민생법안 등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중립성 시비 없이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임기 말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문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연말 치러지는 대선의 공정한 관리도 중요하다. 노 대통령이 '한 총리 카드'를 꺼낸 것은 대선을 겨냥해 정치 행보에 전념하라는 포석이라는 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총리까지 정치싸움에 휘말려서는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한 총리는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생 우선의 국정을 펴길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임명재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여론에 따르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을 결정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수년간 표류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심한 반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후에 주민 의사를 잘 수렴한 지역에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지역발전을 약속 받기도 했다. 서두에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예술의전당의 건립에 따른 지역민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 위함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정치

건축물은 논의의 문제이고 진짜 문제는 어떻게 예술인을 광주에 초청하고, 문화예술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성숙된 문화시민의 소양을 갖추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이다.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동구청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 보다는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미관정비를 하고, 문화예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맞볼 수 없는 독특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고

서정식



올해 광주에서는 굵직한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한다. 오는 6월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10월의 전국제천·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김치대축제 등 대형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이러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잔치일지라도 사고가 나면, 잔치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더구나 국제행사는 세계로 뻗는 빛을 광주를 상징한다. 국제행사 개최는 투자유치나 자동차와 냉장고 같은 '메이드 인 광주(made in gwangju)' 제품을 수출하는데도 유력한 자산으로 작용한다. 안전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투자

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올해 사상 유례없는 기상이변을 예고해, 소방안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고, 중국·몽골에서 발원한 황사의 테러 또한 심상치 않다. 가을엔 태풍도 몰아칠 것이다. 더욱이 자연재해 뒤 끝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전기사고·가스사고·승강기 사고 등도 잇따른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평소 재해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안전의식을 기르고 재해 대응능력을 키우면 아무리 엄청난 자연재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 광주가 1등 광주다

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도시나 사회에는 더 많은 재해와 재난이 찾아온다. 따라서 어린이집부터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사용법·구조호흡법 등 기본부터 익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는 '안전점검 생활화'로 재난 예방에 힘쓰자. 소방안전당국의 힘만으로 140만 도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참여 정신이 있어야 '안전 광주'가 된다. 여기에 질서·정갈·친절 등 엄청난 손실과 함께 그 도시의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훼손한다. 우리는 재해 이후의 관광객 감소, 이에 따른 지역경제 약화라는 악순환을 국내 도시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목격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도시나 사회에는 더 많은 재해와 재난이 찾아온다. 따라서 어린이집부터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사용법·구조호흡법 등 기본부터 익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는 '안전점검 생활화'로 재난 예방에 힘쓰자. 소방안전당국의 힘만으로 140만 도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참여 정신이 있어야 '안전 광주'가 된다. 여기에 질서·정갈·친절 등 엄청난 손실과 함께 그 도시의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훼손한다. 우리는 재해 이후의 관광객 감소, 이에 따른 지역경제 약화라는 악순환을 국내 도시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목격

사고율 높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노인분들께서 차를 가지고 나오신 경우를 자주 접한다. 속도가 지나치게 늦거나 운전이 서툴러 주변 차들을 위협하게 하기 때문에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주고 할 것 처다보면 할아버지 운전자의 경우가 적잖다. 교통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사고에 비하여 3배 이상 높다고 나왔다. 정부는 물론이러니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회수하는 방안과 고령운전자 스스로 신체적인

조건의 변화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늘어나자 자치단체별로 캠페인을 벌여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의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게 하는 사회운동을 펼쳐 효과를 봤다고 한다. 우리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최소와 방안 마련과 운전면허증 가진 반납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송희권·광주시 북구 대령동

랜드마크 유감

인들은 옛 도청일대에 들어설 아시아문화의 전당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 형태가 보잘 것 없다고 반대하고, 거대한 건물로 지어서 그 건물 자체가 관광명소로서 효과를 발휘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전혀 명분없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무모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당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도청을 보전하면서 5·18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건물을 지하화 함으로서 그 조건을 충족시켰고 오히려 지하화 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을 느낄 수 있는 신기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건축물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더 연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후에 문화산업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소비자, 문화시민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남이 하고 있는 일에 신경을 기울여 있어서는 안된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물 위에서 띄울 수 있는 배를 건조하고, 지금부터 치어를 풀어 고기 많은 것을 낚시꾼들에게 홍보하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낚시터도 팔고, 미끼도 팔고, 그물도 팔고, 고기담을 어항도 팔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들이 진정으로 광주 시민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커다란 건물 하나로 광주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며 무지한 것이다.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은편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기고를 신는 코너입니다.

암 환자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최악의 경우' 말해서야

고모부가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병실에 왔던 다른 환자 가족이 우리 옆에서 서성이며 "얼마전에 들어왔던 말기 간암환자가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라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럼 얼마 못사시겠네요"라며 암환자 얘기를 계속해서 화제 삼았다. 너무나 조심성 없는 그들이 원망스러웠다. 일부 간병인들이나 환자보호자들이 이 병동, 저 병동을 들락거리며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며, 아무리 약한 병에도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고 위중한 병일지라도 마음이 굳건하면 병을 이길수도 있는게 병과 환자의 관계이다. 그런걸 좌우하는게 주변의 격려와 말미암로 병원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늘 조심해서 하자. <▲이승민·순천시 교량동

無 等 鼓

미국 워싱턴에 있는 재산권연대(PRA) 주도로 '2007년 재산권지수'가 발표됐다. IPRI(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라는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의 국가별 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해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각 국가들이 자국의 재산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재산권지수는 전 세계 38개 자유주의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자유기업원이 한국을 대표해 자료의 분석 및 발표를 맡았다.

한국의 재산권지수는 10점 만점의 5.8점으로, 70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3점이며, 최고값 8.3점을 기록한 노르웨이와 1위, 최저값 2.2점을 나타낸 방글라데시가 70위로 최하위였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싱가포르·호주·일본·캐나다·미국·홍콩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위), 일본(13위), 홍콩(17위), 한국(25위), 말레이시아(25위), 태국(32위), 인도(33위)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산권 보호수준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중간 정도였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의 법·정치적 환경 항목의 점수는 10점 만점의 4.9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6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물적 재산권의 점수는 5.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지적 재산권의 점수는 6.8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시대,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여 재산권 보호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2-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